

# “5년간 칼 갈았다…올림픽 메달 딸 준비됐다”

도쿄올림픽 D-2...유망주 근대5종 전용태

5년 전 월드컵 제패하며 혜성처럼 등장...올해 월드컵 우승  
“우승 후보 꼽을 수 없는 종목...당일 운 좋은 선수가 이긴다”

“5년 전에 어린 나이에 약학같이 ‘깡’으로 덤비기만 했다. 이제 철저한 계획과 섬세함을 갖추고 알권 알게 됐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26·광주시청)의 5년은 파란만장했다.

2016년 3월 리우에서 올림픽 리허설 격으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혜성처럼 등장, 한국 근대5종의 숙원인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길 후보로 급부상했다.

패기로 부딪혔지만, 실전은 달랐다. 리우 올림픽에서 그는 첫 종목인 펜싱부터 어긋나며 메달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육상과 사격이 결합한 마지막 종목 레이저 런에선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도 최종 순위에선 19위에 그쳤을 정도로 다른 종목이 미치지 못했다.

의욕만 앞섰던 첫 올림픽의 쓴 경험은 전용태를 키웠다. 수영 선수 출신이면서 레이저 런에 특히 강점을 보여 온 그는 펜싱과 승마를 갖고 뛰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2018년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우승, 4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컵 파이널에서 2위에 올랐다.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 정상에 올라 한국의 간판으로 입지를 다졌다.

시즌을 세계랭킹 1위로 마치고 그해 UIPM 시상식에선 연간 최우수선수상까지 받아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땀다.

절치부심 준비한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더 미뤄지고 국제대회도 열리지 못했지만, 단단해진 전용태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용태** ●출생 1995년 ●소속 광주광역시청 ●신체 175cm

주요 기록	내역
2016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우승
2018	월드컵 3차 대회 우승 월드컵 파이널 2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금메달 UIPM 최우수선수 선정
2019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우승
2020	월드컵 1차 대회 은메달
2021년	월드컵 2차 대회 우승

목욕할 때를 기다린 그는 국제대회 재개 이후 올해 4월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메달 후보다운 기량을 입증한 가운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년을 알차게 채운 전용태의 자신감은 리우 때보다 더 강해졌다.

그는 “이제 준비가 됐다. 메달을 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올림픽 메달은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선수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극할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5가지 종목을 모두 치러 성적을 가리는 경기의 특성상 근대5종은 그만큼 변수도 많다. 전용태는 “어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가 지난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1년 근대5종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레이저런에서 사격하고 있다.

(국제근대5종연맹 홈페이지)

는 한 명의 선수가 우승 후보라고 꼽을 수 없는 종목이다. 그날 운 좋은 선수가 이긴다”고 표현했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야담 마로시(헝가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발렌틴 벨로트(프랑스), 영국의 조지프 총, 제임스 쿡 등 유럽 강호들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자이자 절친한 선배인 정진화(LH)

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종목의 훈련을 고루 소화하지만, 펜싱은 특히 집중하고 있다.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기선을 제압해야만 메달로 가는 길이 열린다. 5년 전 뼈저리게 실감한 부분이다.

전용태는 “펜싱에서 25승 정도를 해야 메달권으로 갈 수 있다. 리우 올림픽 이후 경험을 쌓으며 그 25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알게 된 것 같다”며 “거

리 부분에 특히 신경 쓰고, 칼의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될 높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될 높이라고 생각한다. 조금해하지 않으면서 나태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경기 날짜에 맞춰 가장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 보겠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태극전사, 힘내세요! ‘한식 도시락’ 갑니다

선수촌서 20분 거리 호텔 주차장에 임시조리장  
일본산 육류 없는 도시락 하루 평균 425개 배송

주객이 바로 옆 호텔 주차장의 컨테이너 안 특수 대형 가마솥에서 끊임이 구수한 내음을 뿜어내며 팔팔 끓고 있었다.

간이 조리 시설인 이런 컨테이너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객실 100개 규모인 호텔 주방이 좁아 대한체육회가 바깥에 임시 조리장을 구축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급식지원센터는 도쿄 하루미의 올림픽 선수촌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떨어진 지바현 우라야시(市)의 헨나 호텔이다. 일본 언론이 생트집을 잡는 한식 도시락을 하루 내내 조리하는 곳이다.

체육회는 오전 6시 30분, 10시 30분, 오후 4시 30분 세 번 도시락을 싣고 선수촌으로 간다.

이날 오전 도시락 메뉴는 밥, 된장국, 불고기, 사데 매운점, 스펀구이, 뽕어포구이, 갯잎오이무침, 고들빼기무침, 김치와 김, 자두 등으로 채워졌다.

점심 메뉴는 밥, 복어 못국, 정육고추장볶음, 닭다리 조림, 계란말이, 멸치볶음, 오이무침으로 이뤄진다. 저녁엔 밥, 배추된장국, 제육볶음, 장조림, 스펀점, 고추된장무침 등이 선수들을 찾아간다.

총복 전진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표 선수들의 영양을 책임지던 든든한 지원군이 태극전사들과 함께 도쿄로 왔다.

급식센터는 영양사 1명, 검식사 1명, 조리사와 조리원 14명 등 16명의 조리단과 체육회 지원 인력 8명,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 대행사 직원 4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됐다.

급식 지원 센터를 지휘하는 정년구 체육회 선수촌 운영부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충분한 영양 지원을 위해 우리는 유배 생활을 자처했다”고 웃었다.

식자재를 엄격하게 검사·관리하는 김호달



검식사와 한정숙 영양사는 이미 2012 런던 올림픽, 2014 소치동계올림픽 지원 센터에도 다녀온 베테랑이다.

한정숙 영양사는 “코로나19, 일본 후쿠시마 산 식자재 등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끝까지 안전하고 영양이 있는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제공해 만족감을 높이고 싶다”며 “선수들이 도시락으로 힘을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에서 30일치 하루 세끼 메뉴를 짜온 한 영양사의 지휘 아래 조리사와 조리원들은 매일 오전 4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한다.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인의 유전자를 지배하는 장류와 장아찌 등은 한국에서 가져왔다.

대형업체를 통해 검증된 현지 식자재를 구매하되 채소 등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은 후쿠시마현과 인근 8개 현을 제외한 곳의 제품만 산다. 육류는 아예 일본산을 배제하고 뉴질랜드, 호주산을 썼다.

김호달 검식사가 방사능 세슘 측정기로 매일 식자재를 조사하는 등 방사능 식품 원천 차단에 사활을 걸었다.

이미 25개 종목 선수와 지도자가 도쿄올림픽 기간 8500개의 도시락을 급식지원센터에 주문했다. 하루 평균 배송량은 425개분에 달한다.

/연합뉴스

## 한국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 나올까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90개...여자골프·야구 등 선전 기대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가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하계 대회에서 통산 90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 13개씩 금메달을 수확했고, 1988년 서울과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12개씩 금메달을 따내는 등 하계 대회 통산 금메달 90개, 은메달 87개, 동메달 90개의 성적을 냈다.

따라서 23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를 추가하면 하계 대회에서만 통산 100번째 금메달 이정표를 세운다.

동계 대회를 합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121개를 땀다. 동·하계를 합한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은 2012년 런던에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나왔다.

하계 대회 금메달 100개는 지금까지 12개 나라(소련·동독 제외)가 달성한 기록이다.

미국이 1022개로 가장 많고 러시아는 소련 시절을 더해 544개다. 독일 역시 서독, 동독 시절을 포함해 400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224개(전체 4위)로 가장 많고, 일본이 142개(전체 11위)로 그 뒤를 잇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금메달 9개로 대회를 마쳤다.

AP통신이 19일 내놓은 종목별 메달 전망에 한국의 예상 금메달 수가 10개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하계 대회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따낸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나온다면 대회 막판에 100번째 금메달이 예상되는데 8월 7일에 금메달 주인공이 정해지는 여자골프 또는 인기 종목인 야구, 축구가 선전할 경우 100번째 금메달의 영예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올림픽 동·하계 전체 1호 금메달 주인공은 1976년 몬트리올 레슬링의 양정모, 동계 첫 금메달은 1992년 알베르빌 쇼트트랙 김기훈이다.

10호 금메달은 하계의 경우 1988년 서울 대회 유도 이경근, 동계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쇼트트랙 고기현이 주인공이었다.

우리나라의 하계 50번째 금메달은 2004년 아테네 대회 배드민턴 남자 복식 하태관-김동문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 ‘전신 수영복과 다를 바 없다’

우사인 볼트 “기능성 스파이크, 불공정 환경 만들 것” 불만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35·자메이카·사진)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현역 선수들의 ‘기능성 스파이크’ 착용에 관해 불만을 드러냈다.

볼트는 19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스포츠용품 업체들이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스파이크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며 “내가 선수로 뭘 땀 세계육상연맹이 새로운 스파이크를 신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성 스파이크를 신지 않는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연맹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 육상계는 탄소 섬유판 등 첨단 소재를 이용한 운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용품 업체들은 과거 얇은 고무 슬라브를 활용해 운동화를 제작했는데, 2016년 나이키가 탄소 섬유판을 삽입한 베이퍼플라이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

나이키는 운동화의 밑창과 깔창 사이에 탄소 섬유판을 부착한 신기술을 내놓았는데, 이 운동화를

신은 육상 선수들이 세계기록을 쏟아내면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운동화는 선수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육상계에서는 첨단 기술이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수영 종목에서 나온 ‘전신 수영복’ 논란과 다를 게 없다는 내용이다.

전신 수영복을 입은 수영선수들은 2008년에만 총 108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결국 전신 수영복은 논란 끝에 2010년에 퇴출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세계육상연맹은 지난해 2월 국제경기에 착용할 수 있는 신발 규정을 발표했다. 선수들은 밑창 두께 40mm 이하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 탄소 섬유판은 1장만 부착할 수 있다.

도쿄올림픽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 도핑’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스포츠용품 업체들은 기존선 안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극대화하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가 기록 단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라며 “(개인 전용 운동화를 만드는) 뉴발런스가 완벽한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알지만, 이 운동화가 내 기록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